

“작년 2400만명 복권 구입 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 57.9% 복권 구입 경험”... 소득 높을수록 복권 더 많이 구입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의 57.9%가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00만 명이 복권을 산 셈이다.

복권은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회계사·법률사)일수록 더 많이 샀다. 복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졌음에도 사행성을 연상하는 시각은 여전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7 복권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복권 구입 경험자는 전체 성인 인구(4200만명)의 57.9%인 2400만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의 55.9%보다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복권을 더 많이 구매했다. 복권 구매자 10명중 6명(59.5%)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중산계층이었다. 뒤이어 '월평균 소득 300~399만원'(23.0%), '200~299

만원'(11.7%), '199만원 이하'(5.8%)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61.8%)가 여자(38.2%)보다 복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23.3%)의 복권 구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4명중 1명이 지난해 복권을 샀단 얘기다.

40대 다음으로는 50대 21.9%, 30대 20.6%, 60세 이상 20.0% 순이었다. 20대는 14.1%로 복권 구입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회계사'가(33.7%), '법률사'가(22.6%), '자영업'(20.5%), '가정주부'(16.3%) 순으로 나타났다.

로또복권 구입자가 생각하는 적정 1등 당첨금은 평균 21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실제 1등 평균 당첨금 18억9000만원보다 액수가 컸다.

로또복권 구입자의 56.5%는 한 달에 한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 1회 구입금액(로또복권 기준)은 5000원 이하(54.6%)가 가장 많았다.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38.3%), 1만원 초과(7.1%) 순으로 1만원 이하 금액 구매가 전체의 92.9%를 차지했다.

복권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나아졌다. '복권이 있어 좋다'는 평가는 74.5%(34.5%), '즐거워서'(13.5%), '행복·행운을 가져다줘서'(2.6%) 등의 답변도 있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25.5%에게 그 이유를 묻자 '사행성을 조장해서'(27.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어서'라고

밝힌 비율은 12.8%였고, '중독성이 있어서'라는 답변도 11.0%나 됐다.

다만 복권의 사행성 인식은 카지노(93.5%), 경마(93.2%), 경륜(65.7%), 경정(21.4%), 스포츠토로(13.3%), 전 통소싸움(7.1%) 등 7대 사행산업 중 가장 낮은 5.8%였다.

복권 기금이 우선 지원돼야 할 분야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지원'(60.9%)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소외계층 복지'(23.4%),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8.7%), '국가유공자 복지'(3.8%), '문화예술진흥'(3.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남녀 1039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1%포인트다. /뉴시스



코나 일렉트릭 예약판매 현대자동차는 15일 전국 영업점을 통해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전주 소재 애플 서비스 센터 ‘고의 리퍼 유도’ 의혹 제기

센터 “예전부터 부분수리보다 리퍼를 해왔다” 해명

애플 서비스센터가 고의로 리퍼(refurbish·재정비제품)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아이폰은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서도 배터리 문제로 애플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아예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A씨는 최근 배터리 문제로 전주에 있는 한 애플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해당 센터는 배터리 교체보다 리퍼 제품 교환을 제시했다. 케이스가 휘어져 조립이 힘들고 휘어짐 결함으로 메인보드가 고장 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42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리퍼보다 3만4000원이 드는 배터리 교체를 선택했다.

단순 배터리 교체로 메인보드가 고장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분 수리 동의서'를 쓰고 배터리를 교체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전원이 완전히 나가 제품이 켜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리퍼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서비스센터의 설명만 듣고 3만4000원을 지불한 뒤 '떡방'이 된 아이폰을 들고 돌아와야 했다.

A씨는 리퍼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서비스센터의 설명만 듣고 3만4000원을 지불한 뒤 '떡방'이 된 아이폰을 들고 돌아와야 했다.

이 문제는 A씨가 사실 수리업체를 찾았을 때 불거졌다. 리퍼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비스센터와 다르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제품의 전원이 들어온 것이다.

A씨는 해당 서비스센터에 항의했지만 사실 업체에서 점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 A씨는 "사실 업체도 해결하는 문제를 공식 서비스센터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배터리 교체 때부터 리퍼를 유도한다는 의심이 들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리퍼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부분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비스업체가 고칠 수 있는 제품을 두고 리퍼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해당 서비스센터는 본사의 정책일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애플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A씨의 제품은 내부회로 이상이였다. 리퍼를 제시한 이유는 제품을 완벽하게 수리하기 위해서다. 본사 정책이다"면서 "애플 정책은 국내 모든 센터가 동일하다. 예전부터 부분수리보다 리퍼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사실 업체에서 수리가 됐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사실 업체 점검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사상 최대

전북지역 작년 총607억원 판매...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2009년 7월 최초 발행, 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7년도 전북지역 판매액이 연간 판매액 중 사상 최대 실적인 607억원(첫 600억원대 돌파)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전국 판매액이 증가해왔지만, 2017년도 전국 판매액은 1조648억원으로 2016년도 판매액 1조545억원 대비 소폭 감소(2.7%)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판매액 증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었다.

전북지역 판매액 증가 배경에는 다양한 전통시장 사업과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불 조성 활동들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입인식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 구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우리청은 올해에도 다양한 구매촉진 활동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우리청은 올해에도 다양한 구매촉진 활동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러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밝혔다. /김민근 기자

‘내 계좌 한눈에’ 8월까지 모든 금융권 확대

은행과 보험, 대출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9일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 등에 한해 우선 개시한 시스템을 8월까지 우체국·증권·저축은행으로까지 확대, 전국 금융권 통합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PC에서만 접속 가능하던 이용채널은 다음달 말까지 모바일로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개통 이후 31일까지 총 92만5000명의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만7000명이 이용한 셈이

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일평균 이용실적(4만8000명)의 2배 수준이다.

개설 계좌수가 가장 많은 은행 계좌 정보 조회건수가 49만4000건으로 전체 조회건수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 21만4000건(23.1%), 상호금융 11만9000건(12.9%), 대출 4만9000건(5.3%), 카드 4만9000건(5.3%) 순이었다.

또 시스템 개통과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32만개의 계좌가 정리돼 총 324억원이 환급됐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가 4만8000개 해지돼 총 294억8000만원이 주인을 찾았다. 은행권은 26만7000개의 미사용계좌 해지로 29억4000만원이 환급됐다. /뉴시스

제도와 운영현황,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도 적극 수행한다.

금융감독청은 "이와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 내 학계와 연구기관, 블록체인의 업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금감원, ‘가상화폐 TF’ 구성... 실명전환 이행 점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은행권의 가상화폐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17일부터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화폐대응반과 업권별 가상화폐 유관부서 협의체인

가상화폐점검반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첫 회의는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17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TF는 ▲은행의 가상통 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으로 진

행 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점검상황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TF와 발غة 가상화폐대응반은 앞으로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요국의 가상화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